

## 부부의 사랑

그리움의 이슬방울이  
마음속에 떨림과 희망으로 만나  
샘물을 이루었다

사랑의 시작은 샘물과 같다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의 웅덩이였다.

사랑의 과정 중에 샘물은 폭포수와 함께  
소용돌이 치는 급류의 계곡과  
낭떠러지 같은 절벽을 만난다.

단점이라는 이름의 계곡  
전혀 다른 이물질같은 성격의 폭포를 만나  
떨어지고 부서지는 낙차를 맛보았다.

바닥까지 파고드는 뒤집힘의 밤  
위기와 중압감 속에 셀 수 없는  
곤두박질의 세월을 보낸다.

그러다가.....  
사랑은 큰 강물처럼 잔잔히 흐르고  
불안정하지만 재생의 시간 사랑의 회복기를  
맞게 된다.

어느새 돌아보는 세월의 강 앞에  
도도히 흐르는 강은  
주변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행복을 선물하고 있었다.

부부의 강에는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고  
역사의 흥망과 성쇠를 이끌며 흘러간다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상대만을 바라보고  
한 곳을 향해 흐르기를 계속한다.

되돌려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그의 쪽으로 흘러가고  
그가 내 편으로 다가오는 강물의 사랑!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둘이 하나되어 주님이 계신 소원의 항구로  
흘러감을 알았다.

부부의 사랑이 주와 함께 하는  
근원적인 사랑이요  
역사와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사랑임을  
흰머리와 함께 깨닫게 된다

김동우

임충열장로(박은복권사)

## 회 갑 감 사 예 배

일 시: 2012년 1월 10일(화) 오후 5:00



주사랑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06-6  
Tel: 409-6458 www.jsc12.net

임충열장로(박은복권사)

## 회갑 감사 예배

인도: 김만배목사

예배의부름 ..... 일 ..... 동

인도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회 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인도자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이다

회 중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찬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예배의기원 ..... 인 ..... 도 ..... 자

찬 송 .....『331장』 ..... 일 ..... 동

1절: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맘으로 섬기겠네

3절: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맘으로 섬기리다  
온 맘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후렴: 주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 일 ..... 동

기 도 ..... 심영택장로

특 별 찬 송 .....『310장』 ..... 목회자일동

성 경 봉 독 .....『신명기 32:7~12』 ..... 인 ..... 도 ..... 자

- 7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 8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 9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으로다
- 10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 11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 12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설 교 .....『돌아보며 내다보라』 ..... 김만배목사

1)

2)

3)

4)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 일 ..... 동

광 고 ..... 가 족 중

축 도 ..... 목동성결교회  
문교수목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 해요 - 깨닫지 못했 었는데 - 내 가

얼 마나 - 소중한 존재 라는 걸 - 태 초부터 지금 까지

하 나님 의 사랑은 - 항 상 날양 하고있었 다는 걸 - 고 마워요

- 그 사랑을 가르 쳐 준 당신께 - 주 께서어 - 락하신당신

께 그 리스 도의 사랑은 - 로더욱 섬 기며 - 이제

나도 세상에 - 전하리 라 당신 은 사랑받기 - 위

해 그 리고 그 사랑 - 전하기 -위 해 주 께서

택 하시고 - 이땅 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 열매를바라시며